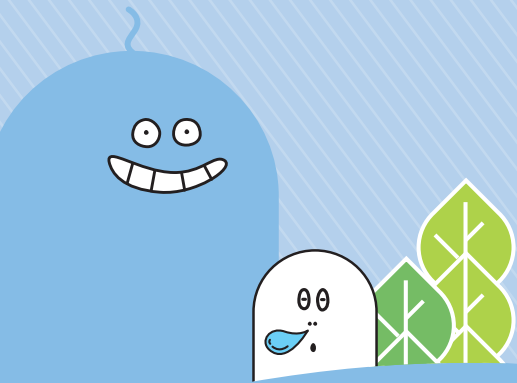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4·1

초등 국어



◦ 진도 교재	2
◦ 평가 교재	28



정답과 해설

진도 교재

○○○○○○○○○○○○○○○○○○○○

독서 단위 질문을 만들며 책을 읽어요

수행 평가

8쪽

- 예 중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을 생각하려고 집중하게 된다. /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다.
- (1) 예 기타 등등 동아리를 신청합니다
(2) 예 오솔이 새로운 동아리 신청서를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 예 새 학기마다 목록에 오른 동아리들이 새롭지 않아서입니다.
(3) 예 동아리 신청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새로 만든 것으로 보아 오솔은 어떤 성격의 학생일까? / 예 주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표현하는 성격입니다.
(4) 예 친구들이 제시한 동아리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 / 예 디저트를 만들어 우아하게 즐기는 요리 동아리입니다. 디저트를 나눠 먹으며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예 우리 반에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동아리를 만들까? / 예 '창의적 글쓰기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창작하면서 상상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 (1) 예 『돼지책』 (2) 예 이야기책
(3) 예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등장 인물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질문을 만든다.

1. 깊이 있게 읽어요

핵심 확인 문제

10쪽

- | | | |
|-------------|------|---------|
| 1 ○ | 2 흐름 | 3 (1) × |
| 4 일이 일어난 차례 | | 5 경험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11쪽

- 1 (3) ○ 2 ③ 3 ⑤
4 예 총각에게 판 나무 그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 술이는 호미가 부러진 콩쥐를 도우려고 황소가 풀을 뽑아 주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 호미가 부러져서 풀을 뽑지 못하고 있었는데 황소가 도와주었으므로, 콩쥐는 자신을 도와준 황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 총각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늘을 사용하려고 영감에게서 나무 그늘을 샀다.
- 욕심 많은 영감이 총각에게 나무 그늘을 팔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유롭게 상상하여 써 본다.

채점 기준 총각에게 나무 그늘을 팔고 영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여 쓰면 정답으로 한다.

소단원 1

기본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알기

12~14쪽

- 1 ②, ④ 2 ⑤ 3 ③, ④
4 예 사납고 무서운 성격이다.
5 ④ 6 ④ 7 ③, ⑤
8 나운 9 눈 10 ③
11 (1) ② (2) ① (3) ①
12 (1) ○ (3) ○

- 모두 빨간 물고기인데 헤엄이만 홍합 껍데기처럼 새까맣고, 헤엄을 잘 쳐서 무리에서 제일 빨랐다.
- 헤엄이는 작은 물고기를 삼켜 버리는 큰 물고기를 피해 바닷속 깊고 어두운 곳으로 도망쳤다.
- 배고픈 다랑어(큰 물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쏜살같이 다가와 작은 물고기들을 한입에 꿀꺽 삼켜 버렸다.
- 물살을 헤치고 쏜살같이 다가와 작은 물고기들을 한입에 꿀꺽 삼킨 행동을 통해 사납고 무서운 성격임을 파악할 수 있다.
-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들을 모두 잡아먹으려고 해서 어두컴컴한 곳에 숨어 지낸다고 하였다.



- 6 헤엄치는 숨어 지내는 빨간 물고기들에게 헤엄치고 놀면서 신기한 것을 구경하자고 하였다.
- 7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힐까 봐 숨어만 지낼 수 없다는 헤엄이의 말을 통해 헤엄이가 도전적이고 용기 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8 숨어 지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한 것은 빨간 물고기가 아니라 헤엄이이다.
- 9 작은 빨간 물고기들은 서로 바짝 붙어서 커다란 물고기 모양을 이루고, 헤엄이는 그 물고기의 눈이 되었다.
- 10 숨어 지내는 자신들을 도와준 헤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 11 인물들의 성격과 역할을 바탕으로 인물들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 12 인물들의 관계를 잘 파악하면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 속 인물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5쪽

- 1 (1) 몽땅 (2) 상쾌 (3) 무성
- 2 (1) 한들거리는 (2) 어두컴컴한 (3) 쏘살같이
- 3 예 밤이 되어 길이 어두컴컴해지자, 거리의 불빛만이 반짝였다.

소단원 1

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 알기

16~19쪽

- 1 ㉔
- 2 예 그리웠던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자 무척 반가웠을 것이다. 3 ㉔ 4 명필
- 5 ㉔ 6 ㉔ 7 석봉의 고향집
- 8 (1) ㉔ (2) ㉔ 9 ㉔
- 10 ㉔, ㉔ 11 (3) ○
- 12 예 어머니는 불품없는 석봉의 글씨를 꾸짖고 열심히 공부해 명필이 되라고 말하며 석봉을 한양으로 돌려보냈다. 13 ㉔
- 14 예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 공부에 전념하였다.
- 15 ㉔, ㉔, ㉔, ㉔, ㉔

- 1 석봉은 명필이 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기로 맹세하고 한양으로 떠났는데,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 2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추운 줄 모르고 달렸습다.’, ‘이제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등으로 보아 어머니를 그리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만났을 때의 마음을 알맞게 적으면 정답으로 한다.

- 3 석봉은 한양에서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명필로 인정해 주었다고 하였다.
- 4 명필은 ‘글씨 잘 쓰기로 이름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 5 어머니는 3년 만에 본 석봉을 반가운 기색 없이 싸늘한 얼굴로 맞았다.
- 6 어머니는 호롱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석봉에게 글을 쓰게 했다.
- 7 석봉의 고향집에서 일어난 일이 나타나 있다.
- 8 호롱불을 끈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떡을 고르게 썰었지만 석봉은 뻔뻔한 글씨를 썼다.
- 9 불을 끄고 글씨를 쓰기 전에는 명필이 되었다고 우쭐했으나 불을 끄고 글씨를 쓴 뒤에는 자신이 자만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 10 어머니는 불품없는 석봉의 글씨를 꾸짖고 열심히 공부하여 명필이 되라고 말하며 석봉을 한양으로 돌려보냈다.
- 11 석봉의 어머니는 석봉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글씨를 쓰게 하였다. 또 ‘아들이 동구 밖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를 통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알 수 있다.
- 12 인물과 장소, 일어난 일을 파악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 본다.

채점 기준 글 ㉔에서 석봉이나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알맞게 정리해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3 ‘자만하였던 제자신이 부끄럽습니다.’를 통해 석봉이 스승님께 부끄럽다고 말한 까닭을 알 수 있다.
- 14 석봉이 한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정리해 본다.
- 15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 본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20쪽

- 1 (1) 명필 (2) 실력 (3) 제자
 2 (1) 볼품 (2) 기필코 (3) 자만
 3 예 그는 기필코 명필이 되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소단원 1

통합 인물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 파악하기

21~26쪽

- 1 (2) ○ 2 ⑤ 3 ⑤
 4 (1) ○ 5 ① 6 갈등하는
 7 예 석봉의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석봉을 새벽에 한양으로 돌려보냈다.
 8 예 사랑하고 보살피는 9 ⑤
 10 ③ 11 밀렵꾼 12 (2) ○
 13 ⑤ 14 ④
 15 (1) 예 화가 남. (2) 예 깜짝 놀람.
 16 예 지피는 목이 짧은 코앞에 온 밀렵꾼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었다.
 17 ①, ④ 18 ③ 19 ④
 20 지피 21 예 미야
 22 예 생김새가 다른 지피를 따뜻하게 감싸고 지피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23 ⑤ 24 ㉠, ㉡, ㉢, ㉣, ㉤

- 1 (1)은 '하늘처럼 민다'의 뜻이다.
 2 미야가 낳은 새끼 기린의 목이 짧은 것을 보고 초원의 동물들이 깜짝 놀랐다.
 3 초원의 동물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경솔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4 초원의 동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2)는 '응원하다'의 뜻이다.
 5 지피는 목이 짧은 기린이어서 기린 친구들이 겉모습만 보고 지피를 따돌렸다.
 6 기린들이 지피를 따돌렸으므로 기린들과 지피는 서로 갈등하는 관계이다.
 7 '가슴이 찢어지다'의 뜻이 잘 드러나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

채점 기준 '슬픔이나 분함 때문에 큰 고통을 받다.'의 뜻이 잘 드러나는 문장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8 미야는 지피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보살피는 역할이다.
 9 "다 잡아다 도시에 내다 팔면 나는 부자가 되지."라는 밀렵꾼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10 목이 긴 기린은 먼 곳만 볼 수 있어서 가까이 다가온 밀렵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11 얼룩말 가족을 뒤집어쓴 행동이나 몰래 기린들을 잡아가는 행동을 통해 밀렵꾼이 남을 속이는 간사한 성격이고 기린들을 괴롭히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밀렵꾼과 기린들은 갈등하는 관계이다. 미야와 지피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이고 기린들과 지피는 갈등하는 관계이다.
 13 다른 기린들은 목이 길어 먼 곳만 내다보았지만 지피는 목이 짧아 가까이 다가온 밀렵꾼을 알아볼 수 있었다.
 14 ㉠은 얼룩말 가족을 뒤집어쓴 밀렵꾼을 말한다.
 15 '지피는 화가 났어요.', '지피는 깜짝 놀랐어요.'를 통해 지피의 기분을 알 수 있다.
 16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 정리해 본다.

채점 기준 밀렵꾼과 지피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알맞게 정리하면 정답으로 한다.

- 17 지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용감하고 씩씩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 밀렵꾼에게 이제껏 잡아 놓은 동물들을 당장 풀어 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잡혀간 기린들을 돕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19 지피가 밀렵꾼에게 그동안 잡은 동물을 당장 풀어 주라고 하자 밀렵꾼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 '새로운 영웅'은 밀렵꾼을 잡아 그동안 밀렵꾼에게 잡혀간 동물들이 초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지피'이다. '그 영웅의 이름은 목 짧은 기린 지피!'라는 부분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21 이야기를 읽고 자신은 어떤 인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써 본다.



22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인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까닭을 정리해 써 본다.

채점 기준 21번 문제에 쓴 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떠올려 적절한 까닭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23 글쓴이는 걸모습이 달라도 모두 소중하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다.

24 인물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 본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27쪽

- 1 (1) 밀렵꾼 (2) 응원 (3) 보초
2 (1) 저만치 (2) 깔보면 (3) 당황한
3 예 그곳은 보초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서 누구도 몰래 들어갈 수 없었다.

소단원 2

기본 내용을 짐작하기 위한
질문을 만드는 방법 알기

28~29쪽

- 1 옹기 2 ③
3 예 옹기는 흙으로 만드는데, 흙에 있는 모래 알갱이들이 작은 숨 구멍을 만들어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4 (3) ○ 5 (1) 불룩 (2) 바람
6 (1) ③ (2) ① (3) ②
7 (1) 지정하다 (2) 유지하다
8 예 옹기 외에도 숨을 쉬는 그릇이 또 있을까?

- 1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릇인 옹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보관(保管)’은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保] 관리함[管].’을 뜻한다.
3 옹기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 있는 알갱이들이 작은 숨 구멍을 만들어 공기가 잘 통하게 해 준다. 그래서 음식을 보관하면 쉽게 상하지 않는다.
4 글의 내용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5 ③ 문단에서 옹기의 허리가 불룩하기 때문에 옹기들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바람이 잘 통해

서 옹기의 위에서 아래까지 비슷한 온도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 6 ㉠은 이어질 내용을 짐작하는 질문, ㉡은 낱말 ‘발효’의 뜻을 짐작하는 질문, ㉢은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한 질문이다.
7 글을 읽으면서 앞뒤 문장이나 낱말이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8 글을 읽고 내용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을 떠올려 써 본다.

채점 기준 옹기의 기능이나 생김새 등 옹기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질문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30쪽

- 1 (1) 보관 (2) 고유 (3) 무형유산
2 (1) 무형유산 (2) 고유 (3) 발효
3 예 발효 식품인 김치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오래 먹을 수 있다.

소단원 2

통합 질문을 만들어 내용을
짐작하며 글 읽기

31~33쪽

- 1 예 글의 제목을 ‘씨앗을 부탁해’로 한 까닭은 무엇일까?
2 (2) ×
3 ③ 4 (1) ○ 5 ③
6 ④ 7 민석
8 어떤 일을 자꾸 되풀이하다.
9 예 더 많은 사람과 씨앗을 나누고, 정성껏 심고 거두어서 다시 씨앗을 받는 것
10 토종 씨앗, 전통 농업 11 ⑤
12 예 씨앗이 중요할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농가에서 재배하는 채소 씨앗도 외국에 돈을 내고 사야 한다는 것은 짐작하지 못했다.

- 1 제목 ‘씨앗을 부탁해’를 보고 궁금한 점을 떠올리며 질문을 만들어 본다.

채점 기준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질문을 만드는 것이므로, 제목과 관련 있는 질문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2 안완식 박사의 노력으로 유전자원과가 새로 만들어졌고, 이것이 훗날 국립 농업유전자원 센터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안완식 박사가 직접 국립 농업유전자원 센터를 세웠다는 내용은 없다.
- 3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안완식 박사는 가장 먼저 전국 곳곳의 토종 씨앗들을 하나둘씩 모아들이기 시작했다.
- 4 (2)는 '까닭', (3)은 '계기'의 뜻이다.
- 5 '재배(栽培)'는 '栽 심을 재', '培 복돋을 배'를 써서 '식물을 심어[栽] 가꿈[培].'을 뜻한다.
- 6 씨앗은 살아 있는 생물과 다름없어서 심고 거두기를 거듭하지 않으면 죽거나 망가져 버린다고 했다.
- 7 토종 씨앗은 심고 거두기를 거듭하여야 한다고 했지, 토종 씨앗을 어두운 곳에 잘 숨겨 놓으라고 하지는 않았다.
- 8 낱말의 앞뒤 내용을 살펴 짐작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거듭하다'의 뜻을 찾아본다.
- 9 씨앗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정성껏 심고 거두어서 다시 씨앗을 받는 것이 건강하게 씨앗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하였다.
- 10 요즘 안완식 박사는 토종 씨앗과 전통 농업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 11 안완식 박사가 만든 모임에서는 씨앗을 심고, 기르고, 다시 씨앗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토종 씨앗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 12 스스로 만든 질문에 답하며 짐작했던 내용이 글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써 본다.

채점 기준 글을 읽기 전이나 읽으면서 짐작했던 내용과, 실제 글의 내용을 비교하여 다른 점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34쪽

- 1 (1) 재배 (2) 발전 (3) 토종
- 2 (1) 보존 (2) 거듭 (3) 재배
- 3 예 우리나라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처럼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35쪽

- | | | |
|-------------|-------|------|
| 1 ㉓ | 2 일 | 3 유진 |
| 4 ㉓ | 5 구치지 | |
| 6 행복하다, 즐겁다 | | |

- 1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2 일이 일어난 차례를 정리하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 3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물들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
- 4 받침 'ㅌ' 뒤에 모음 'ㅣ'가 오면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 5 받침 'ㄷ' 뒤에 '히'가 오면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 6 '기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은 '행복하다, 즐겁다'이다.

단원 평가

36~38쪽

- 1 준우
- 2 예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 3 ㉓ 4 갈등하는 5 (3) ×
- 6 예 사람들에게 명필로 인정을 받았다.
- 7 예 어머니가 계신 집 / 석봉의 고향집
- 8 ㉓ 9 목
- 10 예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격
- 11 갈등하는 12 (1) 미야 (2) 지피
- 13 예 내가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을 때, 엄마가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셔서 도움을 받았다.
- 14 예 동물들은 목이 짧은 지피를 자신들과 생김새가 다르다고 따돌렸다.
- 15 음식 16 ㉓
- 17 예 음식점에서 향아리(옹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음식을 향아리에 보관하는 걸까?
- 18 ㉓
- 19 (1) 예 토종 씨앗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2) 예 토종 씨앗은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기 때 문일 것이다.
- 20 (1) ○

- 1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낱말의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 2 “큰 물고기한테 몽땅 잡아먹히고 말 거야.”라고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3 작은 물고기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겁이 많고 조심스러운 성격인 것을 알 수 있다.
 - 4 큰 물고기(다랑어)가 작은 물고기들을 한입에 삼켜 버리고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를 피해 숨어 지내는 것으로 보아 갈등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이야기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인물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6 석봉은 한양에서 사람들에게 명필로 인정을 받았다.
 - 7 석봉은 한양에서 사람들에게 명필로 인정을 받은 뒤 어머니가 계신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 8 인물의 생김새를 상상하는 것은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 9 “야, 너는 목이 짧아서 싫어. 저리 가!”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10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어린 새끼를 훔쳐 주며 따뜻한 말을 해 주는 것으로 보아, 미야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따뜻하다’, ‘긍정적이다’와 같은 말을 써서 미야의 성격을 나타내면 정답으로 한다.
- 11 기린들은 목이 짧은 지피를 자신들과 생김새가 다르다고 따돌리고 있으므로 지피와 갈등하는 관계이다.
 - 12 미야는 어디든 지피를 데리고 가고, 목이 짧아 슬퍼하는 지피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
 - 13 나를 도와준 사람, 내가 도와준 사람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자세히 써 본다.
- 채점 기준** ‘도움’과 관련된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4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 15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웅기를 사용해 왔다.

- 16 이 글은 웅기가 음식을 보관하기에 좋은 까닭을 설명하는 글로, 외국 사람들이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글의 내용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을 질문한 것이다.
 - 17 웅기를 직접 본 경험, 책이나 매체에서 웅기에 대한 내용을 접한 경험 등을 떠올려 질문을 만들어 본다.
 - 18 안완식 박사는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알고 전국 곳곳의 토종 씨앗들을 모았다.
 - 19 글에 나오는 낱말들을 참고하여 내용을 짐작하는 질문을 만들어 본다.
- 채점 기준** ‘안완식 박사’, ‘토종 씨앗’, ‘국립 농업유전자원 센터’ 등 글에 나오는 낱말들을 언급하며 글의 내용을 짐작하는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20 받침 ‘ㄷ’ 뒤에 모음 ‘ㅣ’가 오면 [ㅌ]으로 바뀌어 소리가 난다.

2. 서로 다른 의견

핵심 확인 문제

40쪽

- 1 × 2 이유 3 (3) ×
4 ○ 5 출처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41쪽

- 1 효빈 2 (2) ○ 3 ③
4 예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한다.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면 골목으로 걸어오는 다른 친구들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서 등교할 때에는 걸어 다니면 좋겠다.

- 1 효빈이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편지로 썼으므로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의견을 나누는 경험은 아니다.
- 2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면 자신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3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4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본다.

채점 기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오지 말자는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여,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쓰면 정답으로 한다.

소단원 1

기본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 마련하기

42~43쪽

- 1 (2) ○ 2 ㉔
3 (1) 예서 (2) 예 우리 반 모두와 관련 있으면서도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1) ① (2) ②
5 (1) 예 색칠 도구를 정리해 둔 장소에 색칠 도구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붙이면 좋겠다. (2) 예 왜냐하면 색칠 도구를 사용한 뒤에 안내문을 보면서 색칠 도구를 바르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이유 7 ②

- 1 규빈이는 (2)의 주제가 우리 반 모두와 관련 있으면서 여러 방법을 의견을 나누면서 찾을 수 있는 주제라고 하였다.
- 2 토의 주제는 토의에 참여한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야 하며, 모두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 3 시연이가 말한 주제는 학생 모두와 관련 있는 주제가 아니며, 정훈이가 말한 주제는 학생들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토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채점 기준 예서의 이름을 쓰고, 토의 주제를 정할 때 생각할 점을 넣어 까닭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4 시연이는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관리하자고 했고, 정훈이는 날마다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다 함께 정리하자고 했다.
- 5 토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 함께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의견으로 떠올려 보고, 그 의견을 실천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를 이유로 쓴다.
- 6 의견을 말할 때에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도 함께 말해야 한다.
- 7 자신의 생각과 같은 의견이라고 해서 적절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채점 기준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고,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44쪽

- 1 (1) 함부로 (2) 발표 (3) 정리
2 (1) 주제 (2) 의견 (3) 해결
3 예 우리 반은 '친구들 간의 다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소단원 1

통합 절차에 따라 토의하기

45쪽

- 1 (1) 3 (2) 4 (3) 2 (4) 1
- 2 토의 주제 정하기
- 3 (1) 예 어떻게 하면 학급 일인 일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2) 예 학급 일인 일역을 하루씩 체험해 보고 원하는 일인 일역에 지원하면 좋겠다.
- 4 은진

- 1 토의는 ‘토의 주제 정하기 → 의견 마련하기 → 의견 모으기 → 의견 결정하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 2 토의 주제를 정할 때 생각할 점이다.
- 3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고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쓰고, 주제에 맞는 의견을 쓴다.

채점 기준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며,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주제를 쓰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4**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말아야 하며, 의견을 실천했을 때 좋은 점이 가장 큰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소단원 2

**기본 글쓰이의 의견을 파악
해야 하는 까닭 알기**

46쪽

- 1** 예 다회용 제품을 구입하여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거나 여러 개의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 2** (1) 사실 (2) 의견
- 3** (3) × **4** 비교

- 1 다회용 제품을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여러 개를 사용할 때 오히려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고 하였다.
- 2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을 뜻하며,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 따위에 대한 생각을 뜻한다.
- 3 글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을 담고 있는 중요한 낱말이나 문장,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보아야 한다.

- 4 다회용 제품을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하자는 글쓴이의 의견과 비교해 보았을 때, 친구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47쪽

- 1 (1) 폐기 (2) 영향 (3) 보호
2 (1) 생산 (2) 습관 (3) 배출
3 예 친구들과의 대화는 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소단원 2

기본 글쓰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 비교하기

48~49쪽

- 1** ㉠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많이 힘들 것 같다.
- 2** ㉡ **3** ㉢
- 4** ㉣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5** 가상 현실 기술, 증강 현실 기술
- 6** 준희
- 7** (1) ㉤ 동물 없는 동물원은 실제 동물원을 대체할 수 없다.
(2) ㉥ 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3) ㉦ 넓은 공간에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물원도 있다.

- 1 동물원에 가 본 경험이 없다면 ‘동물원의 동물’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볼 수 있다.
- 2 동물도 사람처럼 기쁨, 슬픔, 지루함, 즐거움 따위의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고 하였다.
- 3 글쓴이는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4 글쓴이는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의견을 뒷받침하였다.

채점 기준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면 안 된다는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알맞게 찾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5 '동물 없는 동물원'은 가상 현실 기술이나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다고 하였다.
- 6 준희는 원래의 동물원도 사라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글쓴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 7 글쓴이와 같이 동물 없는 동물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글쓴이와 다르게 실제 동물원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글쓴이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채점 기준 동물 없는 동물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글쓴이의 의견과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50쪽

- 1 (1) 대체 (2) 가상 현실 (3) 증강 현실
- 2 (1) 권리 (2) 관람 (3) 존재
- 3 예 가상 현실을 이용하면 먼 나라의 박물관도 마치 실제로 가서 보는 것처럼 관람할 수 있다.

소단원 2

통합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 평가하기

51~53쪽

- 1 (1) 가족 (2) 향교
- 2 ⑤ 3 보존 4 ②
- 5 (1) 문화유산 (2) 개방
- 6 ㉠ 7 (2) ○
- 8 (1) 예 적절하다
(2) 예 문화유산을 체험해 보니 정말 문화유산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 9 (2) ○ 10 ③
- 11 예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하다. 국가유산청 누리집 자료가 사실이며 관리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이다.
- 12 예 적절하다. 그렇게 하면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지 않아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 1 글쓴이는 가족과 함께 동네의 향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 2 이 글에서 글쓴이는 가까운 곳에서 문화유산을 관람해야 옛 조상들이 살았던 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 3 '보존'은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을 뜻한다.
- 4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내용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글쓴이의 의견대로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
- 5 이 글은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의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6 많은 사람이 문화유산을 관람하다 보면 실수로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 7 글쓴이는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자신이 체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 8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 '적절하다' 또는 '적절하지 않다'로 나의 생각을 정하고, 관련해서 까닭을 써 본다.

채점 기준 '적절하다.'의 경우, 까닭에 글쓴이가 말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적으면 정답으로 한다. '적절하지 않다.'의 경우, 까닭에 글쓴이가 말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적으면 정답으로 한다.

- 9 글쓴이는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10 글쓴이는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어렵고,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기 어려우며,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유산에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은 글쓴이의 의견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 11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쓰고, 그에 알맞은 까닭을 쓴다.

채점 기준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적고, 그에 대한 까닭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12 의견대로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등을 따져보며 의견이 적절한지 평가해 본다.

채점 기준 제시된 의견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쓰고, 그렇게 평가한 까닭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54쪽

- 1 (1) 비용 (2) 감수 (3) 생생
2 (1) 애정 (2) 감동 (3) 길
3 예 공연은 티켓을 구매한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감동적이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55쪽

- 1 (1) 의견 마련하기 (2) 의견 모으기
(3) 의견 결정하기
2 서연 3 ㉢ 4 (1) ○
5 (1) 예 파리 (2) 예 갈치 (3) 예 참새
6 ①, ④

- 1 토의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마련한 다음, 의견을 모으고 결정한다.
2 글쓴이의 의견과 내 생각을 비교하며 글을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3 형태가 바뀌는 낱말이 ‘-(으)ㄴ’, ‘-(으)ㄹ’로 끝나는 ‘뿌린’, ‘생각한’, ‘노력할’ 뒤에서는 ‘만큼’, ‘대로’, ‘뿐’을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형태가 바뀌는 낱말이 아닌 ‘선생님’, ‘나’는 붙여 쓴다.
4 형태가 바뀌는 낱말이 아닌 ‘둘’은 ‘뿐’과 붙여 써야 한다.
5 곤충과 물고기, 새에 각각 포함되는 동물들을 떠올려 써 본다.
6 ‘탈것’은 ‘비행기’를 포함하는 낱말이고, ‘비행기’는 ‘여객기’, ‘수송기’, ‘전투기’를 포함하는 낱말이다.

단원 평가

56~58쪽

- 1 (1) 모두 (2) 의견 (3) 해결
2 (1) ○ 3 ㉢ 4 의견 모으기
5 (2) ○
6 (1)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2) 왜냐하면 관리하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모두 물건을 조심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 ㉢ 8 건이 9 (1) ○
10 라 11 목적 12 ㉢
13 (1) ○
14 예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15 ㉢
16 ①
17 (1) 적절해 (2) 적절하지 않아
18 (1) 예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안 된다.
(2) 예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 ① 20 (2) ○ (4) ○

- 1 토의 주제로는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며, 토의를 통해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알맞다.
2 모두와 관련있고, 함께 의견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3 친구들이 재미있어하는 의견이 아니라, 토의 주제에 알맞고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4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5 시연이는 사회자에게 말할 기회를 얻고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말하였다.
6 시연이는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관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뒤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말하였다.

채점 기준 시연이가 제시한 의견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7 색칠 도구를 빌릴 때마다 이름을 쓰면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으므로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진도
교재

- 8 의견의 적절성을 따져 본 후 많은 친구가 원하는 의견으로 결정할 수는 있어도, 친한 친구가 원하는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9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회용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 10 ㉠과 ㉡는 실제 있었던 일인 사실이고, ㉢는 ㉠에 대한 이유이다.
- 11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12 글쓴이가 동물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13 글쓴이는 더 이상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14 동물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지만,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다.
- 15 제시된 낱말의 뜻은 ‘보존’의 뜻이다.
- 16 글쓴이는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오히려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면서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 17 글쓴이는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여 알맞은 말을 고른다.
- 18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생각해 본다.
- 채점 기준**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타당하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9 내가 잘 아는 내용인지는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아닌지와 관련이 없다.
- 20 (1)의 ‘뿌린’, (3)의 ‘생각한’과 같이 ‘-(으)ㄴ’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만큼’, ‘대로’를 띄어 써야 한다.

3. 자세하게 살펴요

핵심 확인 문제

60쪽

- 1 반대 2 ○ 3 한식
4 (3) ○ 5 사실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61쪽

- 1 예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배추흰나비가 되는 모습을 관찰한 적이 있다. 2 영현
3 거미 4 ㉢
5 (1) ㉡ (2) ㉠

-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기, 모양, 색깔 따위가 변하는 대상을 생각해 보고, 어떠한 대상을 관찰해 본 경험을 떠올려 쓴다.

채점 기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대상을 관찰해 본 경험을 떠올려 쓰면 정답으로 한다.

- 2 관찰한 내용을 글로 쓰면 관찰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며, 대상의 변화를 자세히 기록할 수 있다.
- 3 학교 화단에서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발견하고,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다.
- 4 ‘생물’은 생명이 있는 동물과 식물을 모두 포함하는 낱말이다.
- 5 ‘길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은 ‘짧다’, ‘중심’과 뜻이 비슷한 낱말은 ‘가운데’이다.

소단원 1 기본 낱말 사이의 관계 알기

62쪽

- 1 (1) 빗갈 (2) 옷 (3) 곱다 2 (1) ○
3 모르다 4 ㉡
5 (1) 걸으로 나타내는 생김새나 모습. (2) 모습
6 예 빨강, 파랑, 노랑
7 (1) 방향 (2) 앞 (3) 밑



- 1 ‘색’과 ‘빛깔’, ‘의상’과 ‘옷’, ‘아름답다’와 ‘곱다’는 서로 바꾸어 써도 뜻이 비슷한 낱말이다.
- 2 ‘내려가다’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가다.’, ‘올라가다’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가다.’라는 뜻으로 서로 뜻이 반대인 관계이다.
- 3 ‘알다’는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라는 뜻으로,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뜻의 ‘모르다’와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이다.
- 4 ‘한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나 식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피자’는 양식에 포함되는 음식이다.
- 5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보고, 뜻이 비슷한 다른 낱말을 찾아본다.
- 6 ‘색깔’은 ‘빛을 받아 물체가 나타내는 빛이나 색.’을 뜻하며, ‘색깔’에 포함되는 낱말로는 ‘빨강, 파랑, 노랑’ 등이 있다.
- 7 ‘위’와 ‘아래’, ‘앞’과 ‘뒤’는 서로 뜻이 반대되는 낱말이고, ‘아래’와 ‘밑’은 서로 뜻이 비슷한 낱말이다. ‘위, 아래, 앞, 뒤, 밑’을 포함하는 낱말은 ‘방향’이다.

‘쓰다’와 뜻이 비슷하다. ‘삭제하다’는 ‘없애거나 지우다.’라는 뜻으로 ‘지우다’와 뜻이 비슷하다.

- 5 지우개는 연필심의 검은 가루와 뭉쳐 검은 가루를 종이에서 떨어지게 하는 원리로 글씨를 지운다. 종이의 안에 스며든 볼펜의 잉크는 지우개로 지울 수 없다.

채점 기준 지우개가 종이 속에 스며든 볼펜의 잉크를 지우지 못하는 까닭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6 이 글에서는 지우개가 글씨를 지우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서로 뜻이 반대인 ‘붙다’와 ‘떨어지다’가 쓰였다.
- 7 ‘수정하다’는 ‘바로잡아 고치다.’라는 뜻으로, ‘고치다’와 뜻이 비슷하다.
- 8 수정액이 볼펜으로 쓴 글씨를 지울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글 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65쪽

- 1 (1) 스며들다 (2) 파고들다 (3) 필기도구
- 2 (1) 물질 (2) 수정액 (3) 원리
- 3 예 음식을 먹다 흘린 간장이 옷에 스며들어 얼룩이 생겼다.

소단원 1

통합 낱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글 읽기

63~64쪽

- 1 필기도구 2 ④ 3 ②
 - 4 (1) 작성하다 (2) 삭제하다
 - 5 예 지우개는 종이의 안을 파고들 수 없어 종이 속에 스며든 잉크를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 6 떨어지다 7 ②
 - 8 (1) 녹아 (2) 굳으면서
- 1 ‘필기도구’는 ‘연필, 볼펜, 지우개, 샤프’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낱말이다.
 - 2 글씨를 쓸 때 연필심은 검은 가루가 되어 종이 위로 떨어진 뒤에 종이의 겉 사이사이에 붙는다.
 - 3 ‘겉’과 ‘속’은 서로 뜻이 반대인 관계로, ‘쓰다’와 ‘지우다’의 관계와 같다.
 - 4 ‘작성하다’는 ‘서류, 원고 따위를 만들다.’라는 뜻으로

소단원 2

기본 보고하는 글에 대해 알기

66~68쪽

- 1 ⑤ 2 ④
- 3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
- 4 예 사과의 색깔이 처음과 다르게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사과는 처음과 다르게 색깔이 변했기 때문이다.
- 5 (1) ○ (2) ○ (4) ○ 6 정연
- 7 ② 8 (1) ○ 9 ④, ⑤
- 10 예 앞으로 껍질을 깎아 놓은 사과를 보관할 때에는 공기와 만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11 ⑤ 12 ㉠, ㉡, ㉢

- 1 이 글은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하는 글이다.

2 하은이가 사과를 관찰하게 된 동기와 관찰 대상, 관찰 주제, 관찰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 하은이는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 대상으로 정하였다.

4 글 ①에 하은이가 사과를 관찰한 까닭이 나와 있다.

채점 기준 글 ①에서 하은이가 사과를 관찰하게 된 동기를 찾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5 하은이는 사과의 색깔, 겉면의 촉감, 냄새를 관찰했다.

6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했으며 관찰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관찰 내용을 정리했다.

7 한 시간 뒤 관찰한 사과에서 촉감과 향의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8 하은이는 자신이 관찰한 내용과 결과를 사실에 근거해 썼다. 친구들의 생각은 물어보지 않았다.

9 하은이는 잡지를 보고 사과의 색이 변하는 까닭을 알게 되었으며,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사과와 달리 색을 변하게 하는 성분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 글 ⑥에 하은이가 사과를 관찰하고 나서 느낀 점이 나타나 있다.

채점 기준 글 ⑥에서 하은이가 사과를 관찰한 뒤의 느낀 점을 알맞게 찾아 쓰면 정답으로 한다.

11 하은이는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까닭을 알기 위해 『어린이 과학』 잡지를 찾아보았다.

12 하은이가 쓴 글을 다시 읽으며 하은이가 보고하는 글을 쓴 과정을 차례대로 확인해 본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69쪽

1 (1) 군데군데 (2) 변화 (3) 바짝

2 (1) 겉면 (2) 성분 (3) 촉감

3 예 우리 동네에는 군데군데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소단원 2

기본 관찰 계획을 세우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 알기

70쪽

1 ③

2 (1) ③ (2) ④ (3) ② (4) ①

3 (1) ○

4 바다

1 하은이가 관찰 주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을 찾아본 자료의 출처는 『어린이 과학』 잡지이다. 전문가에게 물어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2 하은이는 관찰 대상과 기간, 방법을 밝힌 다음 관찰 내용과 관찰 주제와 관련해 수집한 자료, 느낀 점을 정리하였다.

3 관찰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표현으로 기록해야 한다. 주관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4 관찰 주제와 관련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출처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인지, 글의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고려해야 한다.

소단원 2

통합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 쓰기

71쪽

1 (3) ○

2 예 싹을 만져 보니 겉면이 부드러웠다.

3 ⑤

4 수지

1 관찰한 내용을 보고하는 글을 쓸 때에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2 1-(3)은 실제로 만져 보지 않고 추측한 내용을 쓴 것이므로, 대상을 실제로 만져 보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고쳐 써야 한다.

채점 기준 1번 문제에서 고른 정답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 쓰면 정답으로 한다.

3 보고하는 글의 내용과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사실에 근거해 써야 하며, 그것을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4 ‘만져 보지는 않았지만 싹의 겉면이 거칠거칠할 것 같았다.’라는 부분에서 관찰한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쓰지 않고 짐작하여 썼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72쪽

- 1 (1) 씨앗 (2) 한참 (3) 트다
- 2 (1) 거칠거칠한 (2) 연한
- 3 예 약속 시간을 한참이나 넘기고 나서야 친구가 나타났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73쪽

- 1 (2) ○ 2 ③ 3 과일
- 4 (1) ① (2) ③ (3) ② 5 ⑤
- 6 기준
- 7 예 낱말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는다. / 우리 가족이 키우는 동물의 변화를 관찰하여 글로 쓴다.
- 8 ⑤

- 1 ‘달리다’와 ‘뛰다’는 서로 뜻이 비슷한 낱말이다.
- 2 ‘크다’와 ‘작다’는 서로 뜻이 반대되는 낱말이다. ‘가다’와 ‘오다’ 또한 서로 뜻이 반대되는 말이다.
- 3 ‘사과, 포도, 귤’은 ‘과일’에 뜻이 포함되는 낱말이다.
- 4 ‘입구’와 ‘출구’, ‘싫다’와 ‘좋다’, ‘켜다’와 ‘끄다’는 뜻이 반대인 낱말이다.
- 5 보고하는 글에는 관찰 동기, 관찰 방법, 관찰 내용과 결과, 관찰 대상과 기간 등이 들어가야 한다. 관찰한 사람의 나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 6 보고하는 글은 관찰한 내용과 결과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
- 7 ‘낱말 사이의 관계’와 ‘보고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써 본다.

채점 기준 3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알맞은 방법을 한 가지 쓰면 정답으로 한다.

- 8 ‘애들’이 알맞은 표현이다. ‘이 애’, ‘저 애’를 줄여 ‘애’, ‘재’라고 하고, ‘제’는 자신을 스스로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단원 평가

74~76쪽

- 1 (2) ○ 2 ① 3 느리다
- 4 ④ 5 필기도구 6 유진
- 7 (1) 쓸 (2) 지울 8 ⑤
- 9 (1) ○
- 10 예 공기와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1 ⑤ 12 정열
- 13 예 얼음이 물이 되는 모습
- 14 예 얼음을 컵에 가득 채워 15분마다 그 모습을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해 둔다.
- 15 ③ 16 (1) ○ (2) ○
- 17 예 관찰한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 18 관찰한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 수집하기
- 19 ⑤ 20 ③, ④

- 1 관찰한 내용을 글로 쓰면 내가 관찰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관찰한 내용을 전할 수 있으며, 관찰 대상의 변화를 자세히 기록해서 남길 수 있다.
- 2 ‘색깔’과 ‘빛깔’이 뜻이 비슷한 낱말이다. ‘짜다’는 ‘짭조름하다’와 ‘곱다’는 ‘아름답다, 예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이며, ‘덥다’와 ‘춥다’, ‘알다’와 ‘모르다’는 서로 뜻이 반대되는 낱말이다.
- 3 ‘빠르다’와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은 ‘느리다’이다.
- 4 ‘위’와 ‘아래’, ‘앞’과 ‘뒤’가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이며, ‘방향’은 나머지 낱말들의 뜻을 포함하는 낱말이다.
- 5 ‘연필, 볼펜, 지우개, 수정액’의 뜻을 포함하는 낱말은 ‘필기도구’이다.
- 6 ㉠에서 ‘연필’과 ‘볼펜’을 비교할 수 있지만 ‘연필심’과 ‘잉크’가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은 아니다.
- 7 연필과 볼펜은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필기도구이고, 지우개와 수정액은 글씨를 지울 때 사용하는 필기도구이다.
- 8 보고하는 글을 쓸 때에는 관찰한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써야 한다.
- 9 방울토마토와 딸기에는 색을 변하게 하는 성분이 없다는 내용을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
교재

10 껍질을 깬 사과를 보관할 때에는 공기와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11 색의 변화를 돋보기로 관찰하였으며, 겉면을 만져 보고 냄새도 맡아 보았다.

12 계획에 따라 보고하는 글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관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13 평소 관심 있거나 궁금했던 대상이나 동식물의 변화 모습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골라 써 본다.

14 관찰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관찰 기간과 방법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채점 기준 13번 문제에서 정한 관찰 대상에 맞게 관찰 기간과 방법 등을 적절하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15 관찰한 내용은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한 표현으로 사실에 근거해 쓴다.

16 관찰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관련 자료를 찾아 그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여 쓴다.

17 관찰한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하며 짐작한 내용이나 애매모호한 표현, 주관적인 표현은 쓰지 않는다.

채점 기준 관찰한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쓰지 않았다는 내용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18 관찰한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

19 배추는 ‘채소’에 뜻이 포함되는 낱말이다.

20 모든 낱말에 뜻이 반대되는 낱말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한 낱말에 뜻이 비슷한 낱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서로 뜻이 비슷한 낱말이더라도 낱말의 뜻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서 바꾸어 쓰면 어색할 때도 있다.

매체 단원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요

수행 평가

80쪽

1 (1) 예 많은 자료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 검색 한 번으로 수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2) 예 사실이 아닌 자료도 있다. /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자료들도 있다.

2 (1) 예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2) 누리집: 예 국립어린이과학관(csc.go.kr), 국립중앙과학관(science.go.kr) / 검색어:

예 공룡 발자국 화석

(3) 예 발자국 화석을 보면 어떤 공룡인지 알 수 있다. / 발자국의 길이를 알면 공룡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 양쪽 발자국 화석 사이의 거리를 알면 공룡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4) 예 어린이 과학 잡지 누리집, 과학 전문 기자 ○○○

(5) 예 누리 소통망에 있는 ○○○ 공룡 학자의 글에 따르면 발자국 모양, 발자국 길이, 발자국 화석의 간격을 알면 누구의 발자국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4.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핵심 확인 문제

82쪽

1 동형이의어 2 (2) ○ 3 ×
4 말, 행동 5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83쪽

1 (1) ② (2) ①

2 예 ‘다리가 길다.’라는 문장을 듣고, 사람의 다리가 긴 것인지 물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든 다리가 긴 것인지 헷갈린 적이 있다.

3 ⑤ 4 ④ 5 유나

- 3 ‘먹다’의 뜻은 서로 관련이 있고, 국어사전에도 하나의 낱말 안에 여러 뜻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다의어’이다. ‘배’의 뜻은 서로 관련이 없고 국어사전에도 각각 구분되어 뜻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동형이의어’이다.
- 4 주변의 광고, 간판, 책이나 영화의 제목 등을 살펴보면, 동형이의어나 다의어를 활용한 사례를 찾아보도록 한다.

채점 기준 광고, 책, 영화 제목, 동시 등에서 동형이의어나 다의어를 활용한 사례를 적절히 찾아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88쪽

- 1 (1) 두둑 (2) 상심 (3) 먹음직
2 (1) 동점 (2) 선택 (3) 구슬땀
3 예 그릇에 두둑하게 담긴 김밥은 매우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소단원 2

기본 가리키는 말의 쓰임새 알기

89쪽

- 1 파란색 물병 2 ①, ⑤ 3 그것
4 소은

- 1 ‘이것’, ‘그것’, ‘저것’ 모두 가에 나왔던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을 가리킨다.
- 2 ‘이것’은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할 때 사용한다. 앞에서 나무가 주는 혜택으로 어떠한 내용을 말하였는지 찾아본다.
- 3 앞에서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반창고’라는 내용이 나왔으므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인 ‘그것’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4 가리키는 말은 사람이나 물건, 장소 따위를 집어서 말하거나 알릴 때 쓴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말은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와 같은 이어 주는 말이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90쪽

- 1 (1) 가뭄 (2) 홍수 (3) 혜택
2 (1) 공기 (2) 붙였다 (3) 반창고
3 예 어제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마을에 홍수가 났다.

소단원 2

통합 이야기를 읽고 중심 생각 파악하기

91~92쪽

- 1 ④ 2 (2) ○
3 예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팠으며 보건실에서 열을 재어 보니 열이 많이 났기 때문이다.
4 ④ 5 ⑤
6 예 주은이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이에 적어 책상 앞에 붙여 둔 것.
7 (1) 유지 (2) 환기 8 동현

- 1 주은이는 엄마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다.
- 2 감기와 친구 하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알 수 있다.
- 3 주은이는 열이 많이 난다는 보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조치를 하였다.

채점 기준 주은이가 조치를 하기 전까지 일어난 상황을 파악하여 조퇴한 까닭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4 이야기의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파악해야 한다.
- 5 의사 선생님께서는 음식을 골고루 먹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셨다.
- 6 ㉠의 앞 문장을 살펴보면 ㉠이 가리키는 것은 주은이가 책상 앞에 붙여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이것’이 가리키는 것을 바로 앞 문장에서 찾아 해당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7 ‘유지’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함.’을, ‘환기’는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꿈.’을 뜻하는 말이다.
- 8 의사 선생님은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93쪽

- 1 (1) 환기 (2) 예방 (3) 유지
- 2 (1) 걸리기 (2) 실천 (3) 유행
- 3 예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예방하려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소단원 2

통합 주장하는 글을 읽고
중심 생각 파악하기

94~95쪽

- 1 재회 2 예 메모, 습관, 기억
- 3 예 우리 뇌에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 4 쓰다 5 ㉠
- 6 예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
- 7 예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자.
- 8 ㉡ 9 (2) ○

- 1 로봇을 조립하는 순서에 대한 글은 설명하는 글에 해당한다.
- 2 제목과 글에서 ‘메모, 습관, 기억’ 등의 낱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 3 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뇌의 저장 공간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저장되어 있던 내용을 잊게 된다.

채점 기준 글 ㉠에서 인간이 기억하고 있던 생각을 잊어버리는 까닭을 알맞게 찾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4 ‘알림장을 쓰다.’의 ‘쓰다’와 ‘신경을 쓰다.’의 ‘쓰다’는 형태는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른 동형이의어이다.
- 5 메모를 하면 내용을 기억하느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서 깊이 생각할 수 있다.
- 6 ㉠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은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글쓴이는 글 ㉡에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생각을 드러내었다.

채점 기준 글 ㉡에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알맞게 찾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8 인물과 장소, 일어난 일이 드러나는 것은 이야기 글의 특징이다.
- 9 ‘생각’은 (1)~(2)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다의어이다.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다.’에서는 (2)의 뜻으로 쓰였다.

진도
교재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96쪽

- 1 (1) 기발하다 (2) 두서없다 (3) 요점
- 2 (1) 구분 (2) 획기적인 (3) 구체적인
- 3 예 발표할 때 두서없이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집중하기가 힘들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97쪽

- 1 국어사전 2 ㉠ 3 ㉢
- 4 (1) 식당 (2) 국밥 5 ㉢, ㉤
- 6 (1) 터뜨리다 (2) 헛갈리다 (3) 메꾸다

- 1 동형이의어는 서로 관련이 없는 뜻을 가진 별개의 낱말이라서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구분해 각각 뜻풀이를 제시한다. 다의어는 관련이 있는 여러 뜻을 가진 낱말이기 때문에, 한 낱말 안에 여러 가지 뜻을 제시한다.
- 2 주장하는 글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것과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조사해 보는 것은 거리가 멀다.
- 3 ‘식당[식당]’, ‘국밥[국밥]’, ‘밥상[밥상]’, ‘술가락[술가락]’처럼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ㄱ], [ㄷ], [ㅂ], [ㅅ], [ㅈ]으로 소리 난다.
- 4 ‘식당’은 [식당]으로 발음하고, ‘국밥’은 [국밥]으로 발음한다.
- 5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쓰는 말을 표준어라고 하며, 한 가지 뜻을 나타내는 여러 낱말이 모두 표준어인 경우도 있다.
- 6 ‘터뜨리다’와 ‘터뜨리다’, ‘헛갈리다’와 ‘헛갈리다’, ‘메우다’와 ‘메꾸다’ 모두 복수 표준어이다.

단원 평가

98~100쪽

- 1 예 글의 전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 ㉓ 3 (1) ○ 4 ㉑
 5 먹다 6 (2) ○ 7 ㉑
 8 예 이미 앞에서 나온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할 때 사용한다. / 사람이나 물건, 장소 따위를 집어서 말하거나 알릴 때 사용한다.
 9 그것 10 유진
 11 (1) 예방 (2) 실천
 12 예 주은이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 둔 것
 13 (2) ○
 14 메모를 하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다.
 15 ㉓ 16 생각 17 (2) ○
 18 표준어 19 ㉓
 20 (1) 간지럽히다 (2) 헛갈리다

- 1 글의 전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2 ㉑과 ㉒은 동형이의어이며, ㉓과 ㉔은 다의어이다.
 3 동형이의어는 서로 관련이 없는 뜻을 가진 별개의 낱말이라 구분하여 제시한다. 한 낱말 안에 여러 가지 뜻을 제시하는 것은 다의어이다.
 4 ㉑의 ‘밤’은 글자의 형태만 같고 뜻이 전혀 다른 동형이의어이다.
 5 ‘먹다’는 ‘골을 먹고’, ‘마음을 먹었다’와 같이 활용되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6 ‘저녁’은 다의어로, ㉓은 저녁에 끼니로 먹는 음식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7 ‘고등어잡이 배’와 ‘배 두 척’에서 ‘배’는 모두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만든 물건.’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8 가리키는 말인 ‘이것’, ‘저것’, ‘그것’을 사용하면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된다.

채점 기준 가리키는 말의 쓰임새를 떠올려, 가리키는 말을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9 반복해서 쓰인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반창고’를 가리키는 말 ‘그것’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10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찾아보면 좋다.
 11 주은이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열심히 실천해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12 가리키는 말 ‘이것’이 뜻하는 내용을 앞 문장에서 찾아본다.
 13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는 모습에서 감기를 예방하는 데 꾸준한 실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4 메모를 하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다.

채점 기준 ‘메모를 하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5 글쓴이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16 ‘생각’은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17 제목과 글에서 중요한 낱말을 찾아보고,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본다.
 18 표준어는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쓰는 말이며, 한 가지 뜻을 나타내는 여러 낱말이 모두 표준어인 경우도 있다.
 19 ‘ㄱ’ 뒤에 연결되는 ‘ㅂ’은 ‘[ㅍ]’으로 소리 나므로 [국뽕]으로 발음한다.
 20 ‘간질이다’와 ‘간지럽히다’, ‘헛갈리다’와 ‘헛갈리다’는 한 가지 뜻을 나타내면서 모두 표준어이다.



5.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핵심 확인 문제

102쪽

- 1 × 2 주제 3 (3) ○
4 × 5 인상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103쪽

- 1 ㉠ 2 어디에서 3 ㉡
4 예 『어린왕자』는 내 친구 같은 책이다.

- 책을 읽었던 경험과 관련된 질문이므로, 책을 읽기 싫은 때가 언제인지 질문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
- ‘도서관’에서 읽었다고 했으므로, 책을 읽은 장소(어디에서)를 떠올린 것이다.
- 기억에 남지 않은 장면은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 읽은 책을 떠올려, **보기**의 형식으로 써 본다.

소단원 1

기초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 알기

104~111쪽

- 1 ㉡
2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
3 ㉡ 4 ㉢ 5 동물 이름
6 ㉡ 7 예 무섭고 긴장되었다.
8 ㉡ 9 발표 10 ㉡
11 ㉢
12 예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
13 대왕고래 14 ㉠, ㉢ 15 ㉢
16 예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봤을 때 마음이 어떠했나요?
17 ㉡ 18 물속 19 ㉡
20 예 대왕고래에 대한 책을 찾아본다.
21 인터넷 22 ㉡ 23 ㉠
24 (2) ○ 25 ㉢ 26 ㉢
27 ㉡

28 예 전교생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긴장되었지만 노래를 부르고 나니 멋지게 해낸 것이 자랑스러웠다.

29 ㉠ 30 ㉡

31 예 갑자기 계획에 없던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를 흉내 낸 까닭은 무엇인가요?

32 ㉡

- 알프레드는 언제나 긴장되고 걱정이 되었다. 길을 건너 낯선 사람이 길을 물을 때, 버스를 혼자 탈 때도 겁이 났다.
- 알프레드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더 무서워했다.
-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따위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다.’의 뜻을 지닌 낱말은 ‘발표’이다.
- 알프레드는 긴장되거나 겁이 날 때 긴 앞머리 뒤로 숨었다.
- 종이에는 동물 이름 하나가 적혀 있다고 하였다.
- 선생님은 종이에 적힌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뒤에 한 사람씩 앞에 나와 발표를 할 거라고 하셨다.
- 알프레드는 무섭고 긴장되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 알프레드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라고 했다.
- 알프레드는 하루 종일 금요일에 발표할 생각만 했다.
- 영원히 침대 위에 앉아 있고 싶다고 한 것에는 발표 날인 금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알프레드의 마음이 담겨 있다.
- 알프레드는 종이에 적힌 동물의 이름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 긴장되거나 겁이 날 때, 자신은 어떻게 하는지 자유롭게 써 본다.
- 알프레드가 받은 종이에 ‘대왕고래’라고 적혀 있었다.
- 알프레드는 대왕고래가 몸이 푸른색이라는 것과 바다에 산다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채점 기준 겁이 날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자신의 경험을 잘 살려 썼으면 정답으로 한다.

진도
교재

- 15 대왕고래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한 알프레드는 부모님께 대왕고래에 대해 여쭙어 보았다.
- 16 알프레드를 직접 만나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장면에 알맞은 질문을 만들어 본다.
- 17 엄마는 ‘대왕고래는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 준단다.’라고 하셨다.
- 18 대왕 고래는 물속에 사는데 어떻게 입을 벌려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궁금했다.
- 19 알프레드는 대왕고래가 푸른색이고 바다에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빠와 엄마께 대왕고래가 아주 크다는 것과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 준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다.
- 20 발표할 내용을 찾을 때에는 책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의 면담 내용, 신문 기사 따위도 도움이 된다.

채점 기준 책이나 백과사전 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등의 믿을 만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적으면 정답으로 한다.

- 21 알프레드는 엄마와 아빠께 물어본 뒤 아빠와 함께 인터넷에서 대왕고래에 대해 알아보았다.
- 22 대왕고래는 혼자 아주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다고 하였지만, 무리지어 다닌다고 하지는 않았다.
- 23 ‘수면’은 ‘물의 겉면’이라는 뜻이다. ‘잠을 자는 일’이라는 뜻의 ‘수면’과 글자는 같지만 뜻이 다른 말이다.
- 24 알프레드는 인터넷에서 대왕고래에 대해 열심히 알아 보느라 긴장된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 25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프레드는 몹시 긴장되었다고 하였다.
- 26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다.’의 뜻을 지닌 낱말은 ‘조사’이다.
- 27 알프레드는 혼자 바닷속을 오래오래 헤엄치는 것은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 28 알프레드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의 경험을 떠올려 그때의 기분과 함께 써 본다.

채점 기준 꼭 발표할 때 두려웠던 경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두려워했으나 극복한 경험을 썼다면 정답으로 한다.

- 29 알프레드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30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를 흉내 내었다고 하였으므로, 대왕고래가 소리를 전혀 내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 31 알프레드가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를 흉내 내는 장면에서 궁금한 점을 써 본다.

채점 기준 알프레드의 심정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질문하듯이 질문을 적었으면 정답으로 한다.

- 32 목소리는 무조건 크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알맞은 목소리 크기로 발표해야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12쪽

- 1 (1) 닳새 (2) 주제 (3) 발표
- 2 (1) 안절부절 (2) 곰곰이 (3) 긴장
- 3 예 친구의 답장이 오랫동안 오지 않아 내가 말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안절부절못하였다.

소단원 1

통합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기

113쪽

- 1 성주
- 2 예 멸종 위기 동물이 무엇을 먹는지 알고 싶다.
- 3 ④ 4 (1) ① (2) ②
- 5 ② 6 ⑤

- 1 반려동물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멸종 위기 동물’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다.
- 2 ‘멸종 위기 동물’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면, 무엇을 알아보고 싶은지 떠올린다.

채점 기준 ‘멸종 위기 동물’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점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3 내가 쓴 일기에는 주제와 관련 있는 믿을 만한 정보가 없으므로 알맞지 않다.
- 4 설명하는 말 부분에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끝맺는 말 부분에는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거나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 발표를 듣고 함께 생각할 점 따위를 쓴다.

-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쓰는 것은 편지를 쓰는 방법이다.
- 2 발표를 할 때 무조건 길게 말한다고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발표를 들을 때에는 옆자리의 친구와 이야기하지 말고, 발표를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4 시나브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 5 맛이 조금 매우면서도 단 것을 ‘알근달근하다’라고 한다.
- 6 맛이 조금 매우면서도 달다는 뜻의 ‘알근달근하다’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본다.

채점 기준 ‘알근달근하다’의 뜻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단원 평가

120~122쪽

- 1 ① 2 기억 3 ㉠
- 4 ① 5 ⑤
- 6 예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나요?
- 7 자신감 8 ①
- 9 예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분이 어떤가요?
- 10 발표할 내용 11 ①, ③ 12 발표
- 13 ㉠ 14 (1) ① (2) ② 15 ⑤
- 16 예 나도 발표가 무서워! / 나도 멋지게 발표하고 싶다.
- 17 사자마트 18 ①
- 19 예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인다. /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낀 점을 쓴다.
- 20 시나브로

- 1 책 제목을 말하고 있으므로 ‘어떤 책을 읽었나요?’라는 질문에 어울리는 대답이다.
- 2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 3 글자 수가 많은 장면은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4 종이에는 동물 이름 하나가 적혀 있다고 하였다.
- 5 알프레드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 6 이야기 속 상황과 인물의 감정을 살펴보고 알프레드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떠올려 본다.

채점 기준 알프레드의 감정과 관련된 질문을 생각해 적으면 정답으로 한다.

- 7 알프레드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 8 대왕고래의 먹이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 9 인물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장면에 맞게 떠올려 써 본다.

채점 기준 ㉠과 관련된 질문이면 정답으로 한다.

- 10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하면 자신 있게 발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11 글쓴이는 발표 수업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 자신의 마음과 같은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하였고, 책의 주인공인 알프레드를 말하며 책의 내용을 썼다.
- 12 책에 나오는 알프레드도 자신처럼 발표하기를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였다.
- 13 독서 감상문의 제목은 책의 주제를 나타내거나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으로 붙인다.
- 14 ㉠에는 인상 깊은 장면이, ㉡에는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다.
- 15 글쓴이는 발표를 무서워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멋지게 발표에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 16 제목은 독서 감상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으로 붙인다.
- 17 『사자마트』를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이다.
- 18 『사자마트』라는 책의 내용만 나타나 있다.
- 19 책의 주제나 독서 감상문의 내용을 잘 나타내는 제목을 붙이고, 책을 읽은 까닭,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 등을 더 쓰는 것이 좋다.

채점 기준 독서 감상문의 제목, 책을 읽은 까닭,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적으면 정답으로 한다.

- 20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은 ‘시나브로’이다.

- 3 방울토마토 모종에 물을 준 것이 원인, 방울토마토가 열린 것이 결과이다.
- 4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말할 때에는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과 같은 말을 넣어 말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이어 주는 말을 넣거나 일이 일어난 순서에 맞게 경험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소단원 2

기본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표현한 시 읽기

131쪽

- 1 ① 2 재잘재잘 까르륵
- 3 (1) ① (2) ② 4 예 생생한

- 1 방울토마토를 먹은 경험이 나타나 있는 시이다.
- 2 방울토마토들을 수다 떨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처럼 감각적으로 표현한 말은 ‘재잘재잘 까르륵’이다.
- 3 ㉠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은 맛보는 것처럼 표현했다.
- 4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표현하면 대상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32쪽

- 1 (1) 재빨리 (2) 생글생글 (3) 재잘재잘
- 2 (1) 탕글탱글 (2) 까르륵 (3) 궁리
- 3 예 캠프파이어를 하며 친구들과 재잘재잘 떠들고 까르륵 웃는 시간이 즐거웠다.

소단원 2

통합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시로 쓰기

133쪽

- 1 예 가족들과 딸기 농장 체험을 한 일
- 2 ④ 3 (1) 차르륵차르륵 (2) 두근두근
- 4 (1) ×

- 1 시로 쓰고 싶은 인상 깊은 경험을 떠올려 본다.

채점 기준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이나 대상을 자유롭게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한다.

- 2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었던 경험이 나타나 있다.

- 3 ‘차르륵차르륵’, ‘두근두근’을 활용하여 좋아하는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었던 경험을 표현하였다.
- 4 감각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 실감나게 표현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34쪽

- 1 (1) 두드리다 (2) 감각 (3) 경험
- 2 (1) 두드리는 (2) 두근두근 (3) 빗방울
- 3 예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소단원 2

통합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글로 쓰기

135쪽

- 1 ④ 2 할머니의 사랑
- 3 고소하다, 짹조름하다
- 4 (1) 예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고양이를 본 일
(2) 예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 1 할머니께서 감자전을 만들어 주신 일을 쓴 글이다.
- 2 글쓴이는 감자전에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 3 감자전의 맛을 표현하기 위해 ‘고소하고 짹조름한’이라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 4 글로 쓰고 싶은 경험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 감각을 활용해 모양이나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등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생각해 본다.

채점 기준 최근에 경험한 일 중 글로 쓰고 싶은 일을 한 가지 골라 쓰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부분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교과서 문해력 키우기

136쪽

- 1 (1) 쫄득 (2) 고소 (3) 포근
- 2 (1) 노릇노릇하게 (2) 짹조름한 (3) 검진
- 3 예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인절미는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137쪽

- 1 지아 2 그래서, 왜냐하면
3 예 경험한 일을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일기로 쓸 수 있다. / 시나 글을 읽고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4 돼서 5 됐다고 6 ⑤

- 1 민지는 ‘어제 밤늦게까지 동생과 놀아서(원인) 오는 늦잠을 잔 일(결과)’, 태현이는 ‘어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원인) 배탈이 난 일(결과)’을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했다.
- 2 원인과 결과는 ‘그래서’, ‘왜냐하면’과 같은 이어 주는 말로 연결할 수 있다.
- 3 원인과 결과, 감각적 표현 등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떠올려 본다.
- 채점 기준** 6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4 ‘괴’와 ‘너’가 만나서 줄어들면 ‘괘’로 쓸 수 있다. 따라서 ‘되어서’가 줄어든 ‘돼서’로 써야 한다.
- 5 ‘괴’와 ‘너’가 만난 말이니 ‘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되었다고’가 줄어든 ‘됐다고’로 써야 한다.
- 6 ‘괴’가 ‘너’와 만나서 ‘괘’가 된다는 것에 주의한다. ①은 ‘되었다’, ②는 ‘돼’, ③은 ‘되어서’, ④는 ‘되었다’로 써야 한다.

단원 평가

138~140쪽

- 1 원인 2 (2) ○ 3 (1) ② (2) ①
4 ① 5 ①
6 예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
7 예 모자가 날아갔다 8 ②
9 그래서 10 ⑤ 11 (1) ② (2) ①
12 ④ 13 (3) ○
14 예 방울토마토를 본 경험 / 방울토마토를 먹은 경험
15 내 동생 16 ④ 17 (1) 행 (2) 연
18 ③ 19 노릇노릇하게
20 ④, ⑤

- 1 수연이가 오빠와 자신이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된 원인과 오빠가 자신의 손을 잡아 준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준호가 수연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 2 ‘그렇그렇’, ‘파란’, ‘뚝’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대상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처럼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 3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든 까닭은 원인, 어떤 까닭으로 인해 일어난 일은 결과라고 한다.
- 4 ‘나’는 숙제를 하느라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 5 ‘나’는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을 하고 말았다.
- 6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각을 한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여 쓴다.

채점 기준 지각한 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적절하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7 바람이 분 것이 원인이 되어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갔다.
- 8 모자가 연못에 떨어져서(원인) 지민이는 모자를 줍지 못했다.(결과)
- 9 원인을 먼저, 결과를 나중에 말할 때 원인과 결과를 ‘그래서’로 연결하여 말한다.
- 10 밤새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잔 일 때문에 아침에 감기 기운이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1 아이스크림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원인) 배탈이 났다.(결과)
- 12 방울토마토 모종을 정성껏 가꾸었기 때문에(원인)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린 것이다.(결과)
- 13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말하고, 이어 주는 말을 사용하여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한다.
- 14 방울토마토를 보고 먹은 경험이 나타나 있다.
- 15 방울토마토를 일곱 살 내 동생 같다고 하였다.
- 16 신선한 방울토마토의 표면을 ‘탱글탱글’이라고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 17 시를 쓸 때 표현을 강조하고 싶으면 ‘행’으로 나누고, 의미가 바뀌면 ‘연’으로 나눈다.
- 18 할머니와 함께 감자전을 만들어 먹은 경험이 나타난 글이다.
- 19 감자전이 익어 가는 모습을 ‘노릇노릇하게’라고 표현하였다.
- 20 감자전의 맛을 표현하기 위해 ‘고소하고 짭조름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진도
교재



정답과 해설

평가 교재

○○○○○○○○○○○○○○○○○○○○

1. 깊이 있게 읽어요

단원 평가 1회

2~3쪽

- 1 (1) ② (2) ① 2 (2) ○
 3 지훈 4 (1) 석봉 (2) 어머니
 5 (1) 1 (2) 2 6 ⑤ 7 ⑤
 8 예 밀렵꾼은 얼룩말로 변장해 보초를 서던 기린
 들을 잡아갔다.
 9 상순 10 ①

- 1 마냥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하는 헤엄이는 도전적인 성격, 큰 물고기한테 몽땅 잡아먹히고 말 것이라며 어두컴컴한 곳에 숨어 있는 빨간 물고기들은 겁이 많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2 숨어서 지내는 작은 빨간 물고기들을 헤엄이가 도와 주려고 하고 있다.
- 3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며 이야기를 읽으면 인물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인물을 통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또 이야기의 흐름도 잘 파악할 수 있다.
- 4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떡을 고르게 썰었지만, 석봉은 빼돌빼돌하게 글씨를 썼다.
- 5 어머니가 호롱불을 끄며 자신은 떡을 썰 테니 석봉에게 글씨를 쓰라고 한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다.
- 6 기린은 비싼 가격에 팔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밀렵꾼이 기린을 잡아다 도시에 내다 팔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 7 밀렵꾼은 기린들을 잡아가므로 기린들을 괴롭히는 역할이다.
- 8 주요 인물과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며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 본다.

채점 기준 밀렵꾼, 기린 등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을 파악하고, 인물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알맞게 정리하여 쓰면 정답으로 한다.

- 9 용기에 음식을 담아 땅속에 묻어 두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 10 제시된 질문은 ‘발효’의 뜻을 궁금해하고 있으므로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질문하기’와 관련이 있다.

단원 평가 2회

4~5쪽

- 1 도전적인, 빨간 물고기를 2 ⑤
 3 글씨 4 ⑤
 5 예 한양으로 되돌아가며 석봉은 굳은 결심을 하고 공부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6 ① 7 갈등하는 관계
 8 예 지피 / 다른 기린과 생김새가 다르다고 속상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밀렵꾼을 잡아 기린들을 돕는 모습이 멋지기 때문이다.
 9 ②, ⑤
 10 예 토종 씨앗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 1 큰 물고기를 쫓아 버리기 위해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헤엄이가 도전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헤엄이는 빨간 물고기들에게 헤엄치는 법을 알려 주어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 2 빨간 물고기들은 서로 붙어서 자기 자리에서 헤엄치고, 헤엄이는 눈이 되어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다.
- 3 어머니는 볼품없는 석봉의 글씨를 꾸짖었다.
- 4 석봉은 자신의 실력을 자만한 것이 부끄럽다고 하였다.
- 5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떠올리고,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 본다.
- 6 “여기 밀렵꾼이에요! 내가 잡았어요!”, “이제껏 내가 잡아 놓은 동물들 당장 풀어 줘.” 등의 말을 통해 씩씩하고 용감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7 인물들의 관계는 ‘갈등하는 관계’와 ‘도와주는 관계’ 이외에도 다양하다. 이 이야기에서 밀렵꾼과 지피는 갈등하는 관계이다.
- 8 이야기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살펴보고, 자신은 어떤 인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까닭과 함께 써 본다.

채점 기준 밀렵꾼, 지피, 기린들 등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고르고, 그 까닭을 적절하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9 안완식 박사는 토종 씨앗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국 곳곳의 토종 씨앗들을 하나둘씩 모아들이기 시작했다.
- 10 글의 제목과 내용을 살펴보고 내용을 짐작하는 질문을 만들어 본다.

서술형 평가

6쪽

- 1 예 인물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다.
- 2 예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따돌리고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돼. 겉모습이 달라 도 우리는 모두 소중한.
- 3 (1) 예 도와주는 관계
(2) 예 담임 선생님.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고 말 씀하시고 힘들 때 용기를 주며 도와주신다.
- 4 예 우리 조상들이 용기에 음식을 보관했을 때 외국 사람들은 어디에 음식을 보관했을까?
- 5 (1) 간직하고 관리하다.
(2) 예 친구에게 받은 편지를 책상 서랍에 잘 보관했다.

- 1 이 외에도 인물을 통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점수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며 이야기를 읽으면 좋은 점 한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6점

- 2 인물을 통해 글쓴이가 전하고자 한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기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기린들의 말과 행동을 파악하고, 지피를 따돌리는 기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 3 지피와 미야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이다.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관계인 사람을 찾아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미야와 지피의 관계를 알맞게 쓰고, (2)에 주변에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알맞게 찾아 쓴 경우	6점
(1)에 미야와 지피의 관계를 알맞게 썼으나 (2)에 비슷한 관계의 사람을 찾아 쓰지 못한 경우	3점

- 4 용기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을 떠올려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알맞게 만들어 쓴 경우	6점

- 5 앞뒤 문장을 살펴 낱말의 뜻을 짐작한 다음, 국어사전을 통해 정확한 뜻을 찾아 쓰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본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보관하다'의 뜻, (2)에 '보관하다'를 넣은 문장을 모두 알맞게 쓴 경우	6점
(1)에 '보관하다'의 뜻을 알맞게 썼지만 (2)에 '보관하다'를 넣은 문장을 알맞게 쓰지 못한 경우	3점

수행 평가

7쪽

- 1 예 글의 제목을 '씨앗을 부탁해'로 한 까닭은 무엇일까?
- 2 예 씨앗을 심고, 기르고, 다시 씨앗을 받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한다.
- 3 (1) 예 씨앗을 심고 기르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글에서도 건강하게 씨앗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2) 예 씨앗은 냉동실에 보관하면 죽거나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동안은 지킬 수 있다고 했다.

- 1 글의 제목인 '씨앗을 부탁해'를 보고 궁금한 점을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글의 제목과 관련한 질문을 알맞게 만들어 쓴 경우	10점

- 2 두 번째 문단에 우리가 토종 씨앗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채점 기준	점수
우리가 토종 씨앗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태는 방법을 알맞게 찾아 쓴 경우	10점

- 3 글을 읽으면서 만든 질문, 질문에 답하며 짐작했던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그런 다음 정리한 내용과 글의 내용을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짐작했던 내용과 글의 내용이 같은 점, (2)에 짐작했던 내용과 글의 내용이 다른 점을 모두 알맞게 쓴 경우	10점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5점

평가
교재

2. 서로 다른 의견

단원 평가 1회

8~9쪽

- 1 ①, ③ 2 하늘 3 ③
 4 (1) 예 학급 일인 일역을 하루씩 체험해 보고 원하는 역할에 지원하면 좋겠다.
 (2) 예 일인 일역을 직접 체험해 보고 결정하면 자신에게 잘 맞는 역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⑤ 6 (1) 사실 (2) 의견
 7 (1) ㉠ (2) ㉡, ㉢ 8 (2) ㉠
 9 ④
 10 (1) 예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한다.
 (2) 예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안 된다.

- 제시된 토의 주제는 우리 반 모두와 관련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토의 주제이다.
- 함께 쓰는 섹션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토의하고 있으므로, 하늘이의 의견은 토의 주제에 알맞지 않다.
-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사회자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 의견을 말해야 한다. 또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친구의 의견도 존중하며 경청해야 한다.
-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적절히 써 본다.

채점 기준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적절하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지는 않았다.
- (1)은 실제 있었던 일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고 (2)는 다회용 제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므로 '의견'에 해당한다.
- 글쓴이는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동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며 동물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 (1)은 '동물 없는 동물원'은 실제 동물원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 글 ④는 많은 사람이 문화유산을 관람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②는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고, ④는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단원 평가 2회

10~11쪽

- 1 ⑤ 2 (2) ㉠ 3 (1) ㉠
 4 (2) ㉠ 5 예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6 ⑤
 7 예 동물 없는 동물원은 실제 동물원을 대체할 수 없다. / 첨단 과학 기술을 잘 활용해서 동물 없는 동물원을 더 많이 만들면 좋겠다.
 8 ① 9 보존 10 사진

- 사회자는 주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
- 정훈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2)가 알맞다.
- 제목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또 글쓴이의 생각을 담고 있는 중요한 낱말이나 문장,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보아야 한다.
- 통곶(다회용 제품)을 하루만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는 (2)가 알맞다.
- 이 외에도 글쓴이의 의견과 내 의견을 비교할 수 있고,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수 있다.
- 글쓴이는 동물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동물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하였지, 현재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는 않았다.
-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보고 글쓴이의 의견과 비교해 본다.

채점 기준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알맞게 적으면 정답으로 한다.

- 글쓴이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을 뜻하는 낱말은 '보존'이다.
- 글쓴이의 의견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만, 믿을 만한 자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서술형 평가

12쪽

- 1 예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인가?
- 2 예 다회용 제품을 하나만 사서 오래 꾸준히 사용하자.
- 3 (1) 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통컵, 친환경 가방처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제품을 쓰기도 합니다.
(2) 예 한번 구입한 다회용 제품을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4 예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신문 기사 내용이 사실이며 믿을 만하다. 또, 문화유산 개방으로 오히려 건물이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하다.
- 5 (1) 예 시간별로 관람 인원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아 개방해야 한다.
(2) 예 인원을 제한하여 개방하면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지 않아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

- 1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인지,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적절한지, 의견의 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점수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할 때 생각할 점을 한 가지 이상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 2 ㉠을 통해 다회용 제품을 하나만 사서 꾸준히 오래 사용하자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점수
다회용 제품 하나만 사서 오래 꾸준히 쓰자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 3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 따위에 대한 생각으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글에서 사실과 의견을 알맞게 구분하여 (1)에 사실, (2)에 의견을 쓴 경우	6점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3점

- 4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타당하며 출처가 믿을 만하지, 의견대로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따위를 확인해 평가하는 글을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출처가 믿을 만하지, 의견대로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평가한 경우	6점

- 5 문화유산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의견의 글을 읽고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

채점 기준	점수
글 ㉡와 ㉢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여 의견과 뒷받침하는 내용을 모두 쓴 경우	6점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3점

수행 평가

13쪽

- 1 (1) 예 동물 없는 동물원을 활용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
(2) 예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권리가 있다. / 과학 기술을 이용한 '동물 없는 동물원'을 통해 동물을 만날 수 있다.
(3) 예 동물 없는 동물원은 실제 동물원을 대체할 수 없다.
(4) 예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로 보는 동물은 실감 나지 않는다. / 동물원에서 보호해야 할 동물이 있으며, 동물을 좁은 곳에 가두지 않는 동물원도 있다.
- 2 (1) 예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2) 예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로 보는 동물은 실제 동물을 대체할 수 없어서 실감 나지 않는다.

- 1 동물 없는 동물원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과 뒷받침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의견도 생각해 적어 본다.

채점 기준	점수
(1)~(4)에 모두 알맞게 정리하여 쓴 경우	20점
(1), (3)에 의견은 썼으나 (2), (4)에 뒷받침하는 내용을 쓰지 못한 경우	10점

- 2 글쓴이의 의견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생각해 쓴다. 의견에 따라 같은 점이나 다른 점 둘 중 하나는 없을 수도 있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모두 나올 수도 있다.

채점 기준	점수
글쓴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여 같은 점이나 다른 점을 알맞게 쓴 경우	10점

평가
교재

3. 자세하게 살펴요

단원 평가 1회

14~15쪽

- 1 ③ 2 (1) ② (2) ① (3) ③
 3 ⑤ 4 ① 5 연필, 볼펜
 6 ③ 7 ⑤
 8 (1) 사과와 색깔이 변하는 까닭
 (2) 예 사과에 들어 있는 어떤 성분이 공기와 만나 사과를 색을 변하게 한다. / 방울토마토와 딸기에는 이러한 성분이 없어서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9 ②, ③
 10 (1) 예 만져 보지는 않았지만 싹의 겉면은 거칠거칠할 것 같았다.
 (2) 예 싹을 만져 보니 겉면이 부드러웠다.

- 1 ‘모양’은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을 뜻하는 말로, 뜻이 비슷한 낱말로 ‘모습’이 있다.
 2 ‘앞’과 ‘뒤’는 서로 뜻이 반대인 관계, ‘아래’와 ‘밑’은 서로 뜻이 비슷한 관계, ‘방향’과 ‘앞, 뒤, 위, 아래’는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의 뜻을 포함하는 관계이다.
 3 ‘올라가다’와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은 ‘내려가다’이다.
 4 필기도구에 포함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필기도구’는 연필과 볼펜, 지우개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5 이 글에서는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필기도구로 ‘연필’과 ‘볼펜’을 설명했다.
 6 글쓰이는 관찰할 때마다 사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하였다.
 7 다는 『어린이 과학』 잡지에서 관찰한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8 글쓰이는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까닭을 『어린이 과학』 잡지에서 찾아보았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글쓰이가 『어린이 과학』 잡지에서 찾아본 내용과 잡지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알맞게 찾아 정리하였으면 정답으로 한다.

- 9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출처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인지, 글의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10 보고하는 글을 쓸 때는 관찰한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써야 하므로 주관적인 표현을 쓴 부분을 찾아서 고쳐 써 본다.

단원 평가 2회

16~17쪽

- 1 (3) ○ 2 ⑤
 3 (1) 예 비빔밥, 불고기, 김치
 (2) 예 빨강, 파랑, 노랑
 4 (1) ① (2) ② 5 ⑤
 6 진이 7 ⑤ 8 ④
 9 예 껍질을 깎은 사과를 보관할 때에는 공기와 만나지 않도록 한다.
 10 은빈

- 1 뜻이 비슷한 낱말이더라도 낱말의 뜻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서 바꾸어 쓰면 어색할 때도 있다.
 2 ‘내려가다’와 ‘올라가다’는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이다. ‘곱다’와 ‘아름답다’는 서로 뜻이 비슷한 낱말이다.
 3 ‘한식’은 ‘비빔밥, 불고기, 김치’ 등의 뜻을 포함하는 낱말이고, ‘색깔’은 ‘빨강, 파랑, 노랑’ 등의 뜻을 포함하는 낱말이다.
 4 지우개는 종이에 붙은 연필심의 검은 가루와 뭉치면서 검은 가루를 종이에서 떨어지게 하고, 수정액은 하얀 가루가 녹아서 흘러나온 뒤 굳으면서 종이를 덮는다.
 5 ‘지우다’는 ‘삭제하다’와 서로 뜻이 비슷하고, ‘수정하다’는 ‘고치다’와 서로 뜻이 비슷하다.
 6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인 ‘붙다’와 ‘떨어지다’를 보고 지우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7 관찰 내용과 관련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8 관찰한 내용을 정리할 때 ‘사과의 겉면이 이상하다.’, ‘사과 향이 안 나는 것 같다.’처럼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관찰한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알맞다.
 9 다에서 답을 찾아 적어 본다.

채점 기준 다에서 사과의 색깔을 변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10 관찰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서술형 평가

18쪽

- 예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한다. / 그는 큰 키에 비해 발이 참 작다.
- (1)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2) 모습
- (1)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
(2) 돋보기로 관찰하기, 겉면 만져 보기, 냄새 맡기, 사진으로 찍기
- 예 관찰 대상과 관찰 동기를 쓴다. / 관찰한 내용과 결과를 사실에 근거해 쓴다.
- (1) 예 나팔꽃의 변화
(2) 예 3일 동안 등교 시간, 오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오후 쉬는 시간, 하교 시간마다 관찰한다.
(3) 예 학교 담장에 핀 나팔꽃이 아침에는 활짝 피어 있는데 하교할 때에는 꽃잎이 닫혀 있어서 언제 펴서 언제 지는 건지 궁금해졌다.
(4) 예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한다.

- 서로 뜻이 반대인 낱말을 생각해 보고, 그 낱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뜻이 서로 반대인 낱말을 넣어 문장을 알맞게 만들어 쓴 경우	6점

-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풀이와 뜻이 비슷한 낱말을 찾아 적어 본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국어사전에서 찾은 '모양'의 뜻, (2)에 '모양'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모두 알맞게 쓴 경우	6점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3점

- 글쓴이는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돋보기로 색깔의 변화를 관찰하고, 사과의 겉면을 만져 보고 냄새도 맡아 보았으며, 사진도 찍었다.

채점 기준	점수
(1)에 관찰 대상, (2)에 관찰 방법을 모두 알맞게 쓴 경우	6점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3점

- 이 외에도 관찰한 내용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쓰고, 대상을 관찰하고 나서 느낀 점을 쓰는 등의 특징이 있다.

채점 기준	점수
대상을 관찰하여 보고하는 글의 특징 한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6점

- 현실적으로 관찰 가능한 대상을 고르고, 관찰 기간, 관찰 동기, 관찰 방법 등 구체적인 관찰 계획을 세워 본다.

채점 기준	점수
(1)~(4)를 모두 알맞게 쓴 경우	6점
(1)~(4) 중 세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4점
(1)~(4) 중 두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3점
(1)~(4) 중 한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1점

수행 평가

19쪽

- (1) 예 '중심'과 '가운데'
(2) 예 '겉'과 '속' / '쓰다'와 '지우다'
(3) 예 '필기도구'와 '연필, 볼펜'
- (1) 예 연필의 중심에 있는 연필심이 검은 가루가 되어 종이 겉에 붙음.
(2) 예 볼펜의 가운데에 있는 잉크가 종이의 속으로 스며들어 자국을 남김.
- 예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글의 자세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뜻이 비슷한 관계, 뜻이 반대인 관계,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의 뜻을 포함하는 관계에 있는 낱말을 찾아본다.

채점 기준	점수
(1)~(3)을 모두 알맞게 찾아 쓴 경우	10점
(1)~(3) 중 두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6점
(1)~(3) 중 한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3점

- 뜻이 비슷한 '중심'과 '가운데', 뜻이 반대인 '겉'과 '속' 등의 낱말을 통해 연필과 볼펜을 비교하고 특징을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1번 문제에서 찾은 낱말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여 (1)에 연필의 특징, (2)에 볼펜의 특징을 알맞게 정리해 쓴 경우	10점
(1)과 (2) 중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5점

- 낱말 사이의 관계는 글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낱말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여 글을 읽으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점수
낱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 한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10점

평가
교재

4.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단원 평가 1회

20~21쪽

- 1 (3) ○ 2 ⑤ 3 ②, ④
4 ④
5 (1) 이것 (2)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합니다. 또 산
에 나무가 많으면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
습니다.
6 ⑤ 7 (1) ③ (2) ② (3) ①
8 예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실천해 감기에 걸리
지 않겠다는 것이다.
9 ④ 10 다비

- 1 ㉠은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에서 상대방에게 점수
를 잃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은 ‘어떤 마음이나 감
정을 품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2 ‘배’는 동형이의어로, ㉢은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만든 물건.’을 뜻한다.
- 3 ㉣과 ②, ④에서 ‘눈’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을 뜻한다. ①, ③에서 ‘눈’은 ‘물
체를 알아보는 눈의 능력.’을 뜻하고, ⑤에서 ‘눈’은
‘사람들의 눈길.’을 뜻한다.
- 4 ‘음식을 차려 올리거나 작은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
는 가구.’를 뜻하는 ‘상’과 ‘잘한 일이나 우수한 성적을
칭찬하여 주는 물건.’을 뜻하는 ‘상’은 동형이의어이
며, 나머지는 다의어이다.
- 5 앞에서 나온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고 ‘이것’으로
대신하여 말하였다.
- 6 엄마는 주은이가 평소에도 자주 감기에 걸리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 7 (1) 예방: 질병이나 재해 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
처하여 막는 일. (2) 유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함. (3) 환기: 탁
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꿈.
- 8 감기를 친구처럼 달고 사는 주은이가 감기 예방 방법
을 열심히 실천해 감기에 걸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드
러낸 것이다.

채점 기준 글에 나타난 주은이의 말이나 행동에서 제목
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 적절하게 쓰면 정답으로 한다.

- 9 기발한 생각이 떠오를 때 메모를 하면 필요할 때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메모를 해서 기발한 생
각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 10 이 글에서 중요한 낱말은 ‘메모, 습관, 기억’ 등이다.

단원 평가 2회

22~23쪽

- 1 (1) ② (2) ① 2 ④ 3 ③
4 ④, ⑤ 5 (2) ○ 6 (2) ○
7 (1) 예방 (2) 예방 (3) 실천 (4) 예 감기를 예
방하는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자.
8 ⑤ 9 수연
10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

- 1 (1) ‘차다’는 뜻이 서로 관련이 없고 국어사전에도 각
각 구분되어 뜻이 제시된 동형이의어이다. (2) ‘저녁’
은 뜻이 서로 관련이 있고, 국어사전에도 하나의 낱
말 안에 여러 뜻이 제시되어 있는 다의어이다.
- 2 우리 몸의 일부인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뜻이
서로 관련 없는 동형이의어이다.
- 3 ‘손에 반지를 끼다.’의 ‘손’은 ‘손끝의 다섯 개로 갈라진
부분. 또는 그것 하나하나’를 뜻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의 ‘손’은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
이나 노력, 기술’을 뜻하므로 ③에서 쓰인 ‘손’은 다의
어이다.
- 4 ‘먹다’는 원래 쓰던 하나의 뜻을 넓혀 여러 가지 뜻으
로 쓰는 낱말인 다의어이다.
- 5 ‘고등어잡이 배’, ‘먹음직스러운 배’, ‘배로 맛있다’, ‘배
가 부른 느낌’의 ‘배’는 서로 뜻이 관련 없는 동형이의
어이다.
- 6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7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 주신 방법을 열심히 실천해 더
이상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주은이의 이야기를 통
해, 감기 예방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자는 이 글
의 중심 생각을 알 수 있다.

5.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단원 평가 1회

26~27쪽

- 1 ② 2 대왕고래
3 ① 4 (1) ① (2) ②
5 (2) ○ 6 ⑤
7 (1) ① (2) ②
8 예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열심히 준비
해야 한다.
9 ④ 10 미나

- 1 읽은 책이 무엇인지 말한 것을 찾는다. ①은 책을 읽은 장소, ③은 책을 읽은 까닭, ④는 책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⑤는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다.
- 2 알프레드는 금요일에 대왕고래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해서 대왕고래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 3 알프레드는 발표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께 대왕고래에 대한 정보를 여쭙어보고 있다.
- 4 아빠는 대왕고래를 굉장히 큰 고래라고 하였고, 엄마는 대왕고래가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 준다고 하셨다.
- 5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고, 알맞은 목소리 크기와 빠르기로 발표해야 한다.
- 6 ‘나’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만 하려고 하면 떨리고 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 7 가에는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을 읽은 까닭, 나에는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다.
- 8 ‘나’는 책을 읽고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채점 기준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9 책 제목, 책의 내용은 나와 있지만 책을 읽은 까닭,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등은 나와 있지 않다.

- 10 이 독서 감상문에는 책의 내용만 나와 있다. 독서 감상문을 잘 쓰려면 책의 주제나 독서 감상문의 내용을 잘 나타내는 제목을 붙이고, 책을 읽은 까닭과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써야 한다.

단원 평가 2회

28~29쪽

- 1 ④ 2 ① 3 대왕고래
4 예 발표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긴 까닭은 무엇인가요?
5 ①, ⑤
6 예 인터넷 / 백과사전 7 ①
8 앞머리, 대왕고래
9 ② 10 연서

- 1 친구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떠올릴 필요는 없다.
- 2 알프레드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다.
- 3 알프레드는 말을 하면서 발표 주제인 대왕고래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었다.
- 4 알프레드가 자신감을 얻어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떠올려 질문해 본다.

채점 기준 알프레드가 어떻게 발표를 잘하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쓰면 정답으로 한다.

- 5 자신 있게 발표할 때에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고, 알맞은 목소리 크기와 빠르기로 말해야 한다.
- 6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 다룬 책, 백과사전,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 7 가에는 책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 8 나에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하였는지 나와 있다.
- 9 책의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다.
- 10 제목은 책의 주제나 독서 감상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으로 붙이고, 책의 줄거리만 길게 쓰기보다 인상 깊은 장면이나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등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

6. 경험을 표현해요

단원 평가 1회

32~33쪽

- 1 (2) ○ 2 ⑤ 3 ⑤
 4 (1) ○ 5 예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6 ① 7 ⑤
 8 예 ㉠과 ㉡을 넣고 읽을 때 대상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9 (1) ○ 10 (1) ② (2) ①

- 수연이는 오빠와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된 일의 원인,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 준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 ‘파란’, ‘뚝’과 같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대상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게까지 신나게 놀았던 ‘나’는 예상보다 해야 할 숙제의 양이 많아 밤이 늦어서야 잠 자리에 들었다.
- ‘나’는 밤늦게까지 숙제를 해서(원인) 늦잠을 잤다.(결과)
- 늦잠을 잔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원인과 어울리도록 결과를 써 본다.

채점 기준 늦잠을 잔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울리는 결과를 쓰면 정답으로 한다.

- 원인을 말한 뒤에 결과를 말할 때에는 ‘그래서’로 연결하여 말한다.
- 갓 씻어 놓은 방울토마토가 가득 들어 있는 바구니에서 방울토마토 하나를 집어 먹은 경험을 나타낸 시이다.
-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대상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 할머니와 집에서 감자전을 만들어 먹은 경험을 글로 썼다.
- 할머니가 ‘나’를 안아 주신 것을 몽게구름처럼 포근하다고 표현했고, 감자전의 맛은 고소하고 짭조름하다고 표현했다.

단원 평가 2회

34~35쪽

- 1 장난감(비행기) 2 ④ 3 예 그렇그렇
 4 그래서 5 ③ 6 ③
 7 ⑤
 8 예 방금 씻어 둔 방울토마토가 목욕을 하고 나서 물기를 안 닦으려고 도망가는 동생처럼 보여서
 9 ④
 10 예 치익 / 노릇노릇하게 / 바삭하게

- 수연이는 오빠가 아끼는 장난감(비행기)을 망가뜨려서 사과하려고 오빠에게 편지를 썼다.
- 수연이가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원인)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 주고(결과) 서로 화해할 수 있었다.
- 눈물이 맺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는 것 같은 감각적 표현을 떠올려 써 본다.
- 원인을 말한 뒤에 결과를 말할 때에는 ‘그래서’로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
- 모자가 연못에 떨어져서(원인) 지민이가 모자를 줍지 못했다.(결과)
-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따갑고 콧물이 흐르는 일(원인)로 인하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일(결과)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 경험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할 때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물기가 있는 방울토마토의 모습이 물기도 안 닦고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만 하는 일곱 살 내 동생 같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방울토마토가 물기도 안 닦고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만 하는 일곱 살 동생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을 쓰면 정답으로 한다.

- ‘재잘재잘 까르륵’은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는 방울토마토들을 수다 떨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처럼 표현한 것이다.
- ‘치익’, ‘노릇노릇하게’, ‘바삭하게’ 등의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감자전을 만드는 과정을 실감 나게 표현하였다.

서술형 평가

36쪽

- 1 예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래잡기를 하였다.
- 2 예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갔다.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이다.
- 3 예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 4 예 감자전의 맛을 표현하기 위해 '고소하고 짭조름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 5 예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했다. 친구가 함껏 딱지를 내리칠 때 내 딱지가 뒤집어질 것 같아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다.

- 1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래잡기를 한 일이 원인이 되어 밤늦게까지 숙제를 한 결과로 이어졌다.

채점 기준	점수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래잡기를 했다는 내용을 알맞게 쓴 경우	6점

- 2 지민이가 경험한 일의 결과를 먼저 쓰고 원인을 나중에 써서 '왜냐하면'으로 연결해 본다.

채점 기준	점수
'왜냐하면'을 사용하여 지민이가 경험한 일을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쓴 경우	6점

- 3 아빠에게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연습한 일로 인하여 일어날 결과를 생각하여 쓴다.

채점 기준	점수
혼자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결과를 알맞게 쓴 경우	6점

- 4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이나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한 부분을 찾아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따뜻한', '쫄득하게', '고소하고', '짭조름한', '살살', '뽕' 등 글에서 감각적 표현 한 가지를 알맞게 찾아 쓴 경우	6점

- 5 최근 경험한 일과 경험에 대한 느낌을 떠올려 보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표현해 본다.

채점 기준	점수
최근 자신이 경험한 일을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생생하게 쓴 경우	6점
최근 자신이 경험한 일을 썼지만 감각적 표현을 알맞게 활용하지 못한 경우	2점



수행 평가

37쪽

- 1 예 갓 씻은 방울토마토를 입에 넣고 깨물어 먹은 경험을 나타낸 것이다.
- 2 예 속이 팍 찬 신선한 방울토마토의 표면을 표현한 것이다.
- 3 예 시 속 장면을 상상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 시를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 준다.

- 1 갓 씻어 물기 묻은 방울토마토를 먹은 경험을 쓴 시이다.

채점 기준	점수
방울토마토를 먹은 경험을 시로 나타냈다는 내용을 알맞게 쓴 경우	10점

- 2 속이 팍 찬 신선한 방울토마토의 표면을 탱탱하고 둥글둥글한 모양을 뜻하는 '탱글탱글'로 표현하였다.

채점 기준	점수
속이 팍 찬 방울토마토를 표현한 것이라는 내용을 알맞게 쓴 경우	10점

- 3 감각적 표현을 빼고 읽을 때와 넣고 읽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떠올려 보고 좋은 점을 써 본다.

채점 기준	점수
시 속 장면을 상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시를 재미있게 만들어 준다 등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표현하면 좋은 점 한 가지를 알맞게 쓴 경우	10점



평가
교재

MEMO

